



손우철의 행복한 **부**자되기

부자열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테크 관련 서적이 여전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부자학 강좌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위한 테크닉만 강조하는 내용이 많고 피부에 와닿는 실전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보는 TNV 손우철팀장으로 부터 매주 금요일 다양하고 생생한 재테크 노하우를 듣고 행복한 부자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TNV는 150여명의 전문 기를 보유 한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컨설턴트 회사로 개인 및 기업의 재무설계를 맡고 있다.

■ 손우철 팀장 약력

- 광주 고려고 졸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졸
-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 MBN DMB 라디오
- 여기는 정보센터 재테크 패널

남들 좋다는 투자 따라하면 망한다

2005년부터 종합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기를 미리 반영한다는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840선에서 시작해서 1,400선을 돌파한 후에 조정을 거쳐 1,3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가 오르듯 서민들의 생활도 점차 나아져야 하지만 체감경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국민 1인당 빛이 1천290만원에 이르는데도 하니 한푼도푼 모아가며 부자되기는 그저 요원해 보인다.

열심히 살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를 넘었던 시중 금리는 현재 3~4%대에 머물러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돈을 까먹는 셈이 된다. 또한 출산률 저하에 따른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하락 가능성, 은퇴는 점차 빨라지는데 수명은 연장되는 장수에 대한 위험 등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

로막은 장애물들은 너무 많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맞는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채 쉽게 부자가 되려고만

으로 만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목표없는 재테크는 실사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의미없는 지출로 연결되기 쉽고 실제로 자산형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표없이 가입한 정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를 예측한다. 예를 들면 5년후 주택구입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며, 10년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니 교육비가 1년에 1천만원씩 4년간 필요하고 은퇴시까지 20년이 남았으니 이 기간동안 적어도 5억원은 모아야겠다는 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규모를 예측한 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세워야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단기 재무목표는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권의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유리하고, 3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재무목표는 적립식 펀드와 같이 위험을 동반하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전략이 유리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돈을 모으게 된다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장기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처해 부자가 되는 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수입·목표 고려 '나만의 맞춤전략' 세워야 3년이내는 금융·3년이상은 펀드투자 유리

즉, 개인의 재무상황과 목표들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반적인 전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직원이 좋다고 권유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지인이 좋다고 하는 부동산을 무리해서 구입하거나 심지어 정기적금 하나 가입한 후 부자가 된 기본

기적금을 만기까지 운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자신의 목표를 만기에 맞추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반대로 가야한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의 자신의 재무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

은행 상반기 순익 8조

사상 최고치...광주은행 552억

광주은행이 5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이 8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이 8조5874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5천517억원에 비해 23.4%, 1조5천357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은행도 상반기 결산 결과 총자산 12조3천800억원, 총수신 9조5천억원, 총대출 7조6천억원과 함께 당기순이익면에서는 전년 동기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552억원(세전이익 750억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미래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1천81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3천774억원에 비해 50.3%, 1조1천963억원이나 줄어 들었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이자이익이 14조5천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4천107억원보다 8.5%, 1조1천384억원 늘어난 것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 하이닉스나 LG카드, 현대건설 등 출자전환 주식 매각이나 기업 정상화로 감액손실 환입액 등 투자 유가증권 이익이 7천540억원 증가한 것도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은행들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순이익률(ROA) 역시 1.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6%에 비해 0.14%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은행들의 수익구조를 자세히 보면 본질적인 수익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총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행들의 총이익률이 하락한 것은 대출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경쟁 격화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지난해 3.11%에서 올해 2.95%로 0.16%포인트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美 '의약품 선별 등재' 수용

한미FTA 막후 접촉서 극적 타결

美, 약제급여조정위 참여 요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분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리측의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 도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약값 수준'과 '등재목록'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에 자국 위원의 참여, 의약품 관련 법규의 입법예고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의 난제가 해소됨에 따라 오는 9월초로 예정된 한미 FTA 3차 분협상은 '상품·농산물·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유보안 교환' 등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상에 참여한 정부 부처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2차 분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마지막날 한미 협상단 양자와 보건복지부 등 3자간 막후교섭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결국 미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가 완강했으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이 워낙 강해 결국 우리 측대로 결렬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초대형 걸리버 선글라스

27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초대형 걸리버 선글라스를 전시,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환율·유가 불안에도 씹씹이 커

■ 상반기 경상수지 9년만에 적자 왜?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가 결국 적자를 면치 못했다. 5월과 6월 두달간 연속 1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으나 2~4월 석달간 쌓여온 적자를 상쇄하지 못하고 상반기에 2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상반기 101억달러 적자 이후 반기기준으로는 9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이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요인=올해 1월은 9천만달러 흑자로 간신히 적자를 면하면서 불안한 스타트를 보였으며 2월에는 7억8천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3월에는 4억3천만달러의 적자에 이어 4월에는 적자규모가 16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5월과 6월에 13억6천만달러, 11억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기존 적자를

메우는데 역부족이었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데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줄어든 데 반해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폭은 커졌기 때문이다. 1~6월 상품수지 흑자는 128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78억달러에 비해 50억달러나 줄었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62억4천만달러에서 88억8천만달러로 26억4천만달러가 늘었으며 소득수지 적자도 18억4천만달러에서 21억3천만달러로 확대됐다. <7.8월이 최대 고비=하반기에는 그럭저럭 흑자를 이어가면서 연간 4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날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자 출국이 급증하는 7.8월이 고비다. 6월 한달

해외여행비 지출액은 11억8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6% 늘었다. 해외여행자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상품수지 흑자가 줄면 7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유가·환율 효과도 불안 요인=상품수지 이외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가 모두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간 40억달러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가 어느 정도 선방해줘야 하지만 대외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국제유가의 불안이다. 유가가 급등하면 상품수입액이 늘고 당연히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게 된다. 또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효과 서서히 가시화되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정밀실사 31일 강행

노조 "저지" ...총돌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 노동조합의 저지도 중단됐던 대우건설 매각 정밀실사를 다음주 초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노조는 계속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사단과 노조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정밀실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31일부터 정밀실사가 시작되면 지난 4일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이후 27일 만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는 등의 대우건설 노조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적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31일께 실사단을 파견해 정밀실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사단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11일과 21일 실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고, 26일 4~5시간에 걸친 3차 마라톤 협상도 끝내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합뉴스

시속 400km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추진

건교부 766억원 투입

정부가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고속철도에 이어 최고시속 400km에 이르는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과학기술부와 함께 2011년까지 최고시속 400km의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인 HEMU(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개발 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사업비 764억6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이번 고속열차 시스템은 6량 1편성 동력분산식 열차로, 최고 시속 400km에 영업속도 350km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차세대 고속철도의 연구 기획에 착수했으며,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에는 사업공고를 내고 연구개발 제안을 접수받는 등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왕	사무실 여직원(경리업무)	고졸/경력1년	1,000~1,200	07/31	062-575-7770
☎채능교육광주	정규직 채용선생님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73-1132
한빛경찰전문학원	홈페이지 관리 및 상담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31	062-262-3553
신일가스☎	신규영업, 영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8/02	062-951-0011
신성하이텍☎	총괄/기공기술/품질관리/CNC선반/VMCT/검사/물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3	062-952-1441
☎성진케이밀	납품관리 및 영업관리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3	062-943-8115
☎그린텔	KTF광주멤버센터 38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8/03	042-223-4900
☎도현	분야별 사원-품질/구매/공무/금형/경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5	062-943-6508
☎현우기공	생산관리 경력사원	초대졸/경력7년	2,200~2,400	08/05	062-954-4369
경진정보통신☎	영광원지역본부 통신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05	062-576-2002
이라이프매거진☎	광고직 총무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8/05	062-959-43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삼성전자, 세계 최고속 메모리카드 개발

삼성전자는 27일 세계 최고 속도의 메모리 카드인 'MMC플러스' 제품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각각 1, 2GB(기가바이트) 용량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4Gb(기가바이트) SLC 낸드플래시를 적용한 제품이며, 읽기 속도가 초당 40MB(메가바이트), 쓰기 속도가 초당 25MB로 기존 메모리 카드보다 3배 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1천장 또는 MP3 음악 500곡, DVD급 영상 2시간 분량을 1분내에 PC로 옮길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SLC'는 하나의 칩에 하나의 메모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며, 반면 하나의 칩에 둘 이상의 메모리를 올리는 'MLC' 방식을 적용하면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공정위, KTF·LGT에 67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음성통화요금을 담합한 KTF와 LG텔레콤에 모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KTF 46억7천만원, LG텔레콤 20억2천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 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애초 과징금에서 70%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징금은 500억원에 근접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연합뉴스